

더민주 비례 공천 논란 ‘후폭풍’

1번 박경미 교수 ‘표절’ 시민단체 낙천 대상자 포함 부실검증 논란...확정 미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비례대표 ‘셀프 공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기에 당의 정체성에 배치되고 도덕성에 논란이 있는 인사들도 비례대표에 포함되면서 ‘부실 검증’ 논란까지 일고 있다.

20일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에 20%를 전략공천할 수 있는 대표 권한에 따라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했다.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를 1번에, 자신을 2번에 배치하고, 최윤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를 6번에 선정했다.

하지만 자신에 부여된 전략공천 몫에 자신을 포함시킨데 대해 ‘셀프 공천’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그동안 김 대표가 비례대표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수차례 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그동안 네 차례나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다섯 차례나 비례대표를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 자신을 비례대표 2번(남성 첫 번째)에 배정한 것을 놓고도 ‘배수의 진’을 치는 차원에서 대표에게 후순위를 부여했던 전례에 비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김 대표의 비례대표 배치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며 “비례대표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야를 떠나 비례대표만 5번째라니 기네스북에 추천할 만한 일”이라며 “김종인 대표는 국보위 전력에 뇌물수수 전과까지 있다는 점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받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논란의 중심 김종인-홍창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하며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비례대표 1번에 배정된 박경미 교수도 과거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순번 1~10번 배정 후보인 A그룹에 포함된 박종현 전 공공검찰총장은 아들이 비리에 연루된 방산업체에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수차례 막말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 이홍득 전 최고 위원도 상위에 배정됐다.

상위 순번의 광주·전남지역 출신 비례대표로는 영암 출신의 최윤열 서강대 교수

와 순천 출신의 이재서 충신대 교수 등이 다.

이처럼 비례대표 후보 공천 절차를 둘러싼 비상대책위의 결정에 대한 논란으로 20일로 예정된 비례대표 후보 명부 확정도 무산됐다.

더민주의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 비대위가 마련한 비례대표 후보군을 토대로 순위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투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앙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21일 오후 중앙위를 재소집해 처리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권노갑 “김종인 대표 앓힌 더민주, 민주주의 후퇴시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한 권노갑 전 더민주 상임고문은 20일 “1980년 당시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 활동을 해온 김종인씨를 데려와 당 대표로 앓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60년 역사를 더럽힌 몰염치한 정당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전 고문은 이날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 대표를 대표로 데려온 민주당은 정통성과 역사성을 더럽힌 것”이라며 “더민주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80년 5월 광주에서 비폭력 시위를 하던 광주시민을 전두환 정권은 총칼로 학살을 했다”면서 “그런 정권에서 국보위 활동을 해온 김종인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탈당의 당위성도 설명했다.

권 전 고문은 이어 “역대 군사정권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김종인 대표에게 당을 맡

긴 문재인 전 대표도 민주주의를 배신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더민주의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고, 정권교체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당이 호남정신과 김대중 정신을 지키고 민주당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13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현장

오형근 “제2노인복지관·건강센터 건립”



국민의당 오형근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0일 제2노인종합복지관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의 내용이 담긴 중기 노인복지대책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노령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 여러 핵심과제들을 한데 모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기에 시행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특히 “취약계층이 동구 인구의 33%에 이르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인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진태 “일자리 넘치는 동구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홍진태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0일 “구도심 상권활성화 도심형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문화로 먹고사는 동구, 소득과 일자리가 넘치는 풍요로운 동구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동구의 도시재생선도사업과 연계하여 총장로, 금남로, 대인·남광주시장 등에 대해 상권별 특화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등 ‘도심형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와 소득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대형마트, 지역상권 배려해야”



국민의당 김성환 광주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0일 “지역 대형마트들이 편법으로 영업시간을 늘려 왔으나 해당 구정들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채 사실상 이를 방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형마트들은 지역상권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자치단체는 중소상인을 보호·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해당 구정들이 영업시간 제한 관련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유통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놓인 지역상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안재경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거점 활용”



국민의당 안재경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20일 동구 곳곳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주민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을 지역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마을 속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특히 동구지역 35개 작은 도서관에 맞춤형 컨설팅과 작은도서관 협의회 등을 구성해 자립기반 조성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양혜령 “해빙기 노후 주택·담장 점검 필요”



무소속 양혜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0일 해빙기 안전사고와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절개지나 낙석 위험 지역을 지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하며 이상 징후를 발견 시에는 곧바로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소방서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동구는 낡고 노후된 주택, 담장 등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과 인접지역에도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방정현,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사퇴



국민의당 방정현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방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숙의 배심원제가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새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새정치에 부합하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라 생각했기에 기대가 컸다”면서 “하지만 경선방법은 여론조사방식으로 결정돼 ‘속이 티’라고 생각하며 아쉬움은 남지만 중앙당의 어려운 결정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충행기자 golee@

새누리 87% 공천 확정...유승민 지역구는 보류

(대구 동울)

20대 총선 출마자 확정을 위한 새누리당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최대 관심지역인 유승민 의원 지역구(대구 동울)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20일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를 진행했지만 유 의원에 대해서 결론을 유보했다. 오는 25일이 후보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더 지나면 물리적으로 당내 경선을 치를 수 없게 된다.

당 공관위는 이날까지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221개 지역구의 출마자를 확정해 공천 진척도는 87.4%를 기록했다.

서울은 49개 지역구 가운데 41곳의 출마자가 결정돼 84%의 공천확정 비율을 보였다. 또한, 경기도는 60곳 가운데 55곳(91.7%)이, 인천은 13곳 가운데 12곳

(92.3%)이 결정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89%의 공천 진척도를 보였다. 이어 부산(78%)과 광주(75%), 대전(85.7%), 충북(87.5%), 충남(81.8%) 지역도 70~80% 공천이 마무리됐고, 경북(84.6%)과 경남(87.5%)도 막바지 경선만 남은 상황이다.

울산과 세종, 전북, 전남, 제주의 경우 모든 지역구에서 출마할 후보자가 확정됐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 사태로 ‘뜨거운 감자’가 된 대구의 경우 12곳 가운데 8곳만 후보자 확정돼 66.7%로 가장 낮은 후보자 확정률을 보였다. 아직 최종 후보자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구는 32개다.

이제까지의 공천 결과는 비박(비박근혜)계, 그중에서도 구 진이(진이명박)계와 친유승민계 의원들이 ‘학살’ 수준으

로 공천 탈락당했다. 반면,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 측 핵심 의원들은 대부분 생존했다. 김 대표가 친박계와 아랍했다는 설이 나오는 이유다.

당 공관위는 유승민 의원 등 공천문제를 제외하곤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기간이 24~25일이고, 새누리당 공천자 대회가 23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공관위는 늦어도 22일까지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후보자 확정을 마무리하고 공천장을 나눠줘야 한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23일 공천자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한편, 새누리당의 공천에서 배제된 진영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6년 지역수요맞춤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R&D 역량 극대화 및 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16년 지역수요맞춤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남 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 개요

■ 목적

- 도내 중소기업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R&D 지원
- 창업 초기 기업 대상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예산배정은 신청과제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구분	① 연구개발 전략수립	② 역량강화 연구개발	③ 연구성과 사업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지식재산기술 로드맵 수립 ■ [일반/패키지] R&D 기획 지원 * 기획 우수과제 2건 선정 R&D,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수요기술의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연구성과 또는 이전 기술의 추가 연구개발 또는 관련 응용기술 개발 지원
사업비	■ 540백만원	■ 800백만원	■ 800백만원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30백만원, 4개월, 5개 내외 ■ [일반/패키지] 10백만원, 4개월, 9개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백만원, 12개월 (8개 내외) - 도비 75% - 수행기관 25%(현금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백만원, 12개월 (8개 내외) - 도비 75% - 수행기관 25%(현금 20%)
추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도내 중소기업 ■ [협력] (IP) 특허법인 / (일반/패키지) 전문가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도내 중소기업 ■ [참여] 학·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도내 중소기업 ■ [참여] (산) 학·연
가점	■ 기초지자체 대응 자금 확약 과제 (②, ③ 과제)		

■ 사업비의 구성

- 총사업비 = 도지원금 + 민간부담금(수행기관부담금 + 기초지자체 대응자금)
- 기초지자체 대응자금 : 연구장비·재료비와 연구활동비로 산정

● 지원사업별 사업비 구성

구분	총사업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지자체 대응자금
			수행기관 부담금	현금	
연구개발 전략수립	100%	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역량강화 연구개발	100%+α	75%	25%(현금 10% 이상)	25%	별도(α)
연구성과 사업화	100%+α	75%	25%(현금 20% 이상)	25%	별도(α)

2.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사업설명회 : 2016. 3. 23(수) 13:00 ~ 14:40 / 전남도청 왕인실
- 공고기간 : 2016. 3. 17(목) ~ 4. 18(월)
-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5845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2층
 - 접수기간 : 2016. 4. 11(월) ~ 4. 18(월) 17시
 - 접수방법 : 접수 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관련 서식 등은 전남TIP 및 전남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 담당부서 : 전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지원팀
- 세부사업별 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연구개발 전략수립 지원사업	박지은 연구원	061-460-5235 (jepark@jntp.or.kr)
역량강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심용석 선임	061-460-5232 (shimys@jntp.or.kr)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	박용일 선임	061-460-5231 (gigiana79@jntp.or.kr)